

개·고양이에게 초콜릿 먹이면 심장마비 위험

카카오 성분 테오브로민 치명적
우유를 섭취 땀 구토·설사 증상
개는 알코올 분해 못해 호흡곤란

반려인만 1000만 명에 달하는 '반려동물 전성시대'다. 이제는 언제라도 집 밖을 산책으로 산책하는 반려견을 볼 수 있다. 그뿐인가. 반려묘를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집사임을 드러내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반려견, 반려묘 외에도 돼지나 새 등 이색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전성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반려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상태다. 단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도 힘들뿐더러, 애정과 관심을 보인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피해야 하는 음식이 많다고 경고한

다. 이러한 음식을 피하지 않으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크게 고생할 수 있다.

일단 반려견에게 먹이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우유다. 흔히 강아지에게 우유를 먹여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성분이 있다. 사람이나 동물 모두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유당을 스스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유당 성분에 대한 소화능력이 떨어지면 우유를 마시고 췌장염, 사람 중에는 동양인에게 주로 유당불내증이 있고, 일찍이 낙농업이 발달한 서구인들에게는 찾아보기 쉽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우유를 그냥 주면 소화불량으로 복통이나 구토, 설사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양 차원에서 우유를 먹이고 싶다면 유당이 제거된 '반려동물용 우유'를 먹이면 된다.

또 하나 사람에게 익숙하지만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음식은 초콜릿이다. 초콜릿의 주성분은 카카오로, 카카오의 주



반려동물에게 주면 안 되는 음식에는 우유, 초콜릿, 알코올, 포도 등이 있다. 사람에게와는 익숙하고 맛있는 음식들이지만 반려동물에게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 | 펫뉴스

성분은 테오브로민이다. 테오브로민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에게와는 달콤한 초콜릿이 반려동물에게는 위험으로 작용한다. 개,

고양이, 말, 일부 조류 등 동물이 초콜릿을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테오브로민이 심혈관계 확장 및 심박을 상승시키는데, 동물은 테오브로민 분해속도가 인간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실수로 한 조각 먹는다고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당량을 여러 차례 섭취할 경우 위험하다. 특히 개는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주지 않는 게 좋다.

알코올도 반려동물에 위험하다. 개는 알코올 분해효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적은 알코올만으로도 급성 알코올 중독 현상이 일어나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극진히 아끼다면 우유, 초콜릿, 알코올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외에도 포도나 양파 등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도 주의를 요한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 접근성 좋은 수원에 문 활짝

유기동물 무료분양·예비보호자 교육 진행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수많은 반려인이 유기동물을 입양하지 않고 품종이 개량된 혈통 좋은(?) 반려동물을 구입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가 수원에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수원 도심지에 설치한 이유는 지하철, 버스 등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는 유기동물 무료분양 등 유기동물 입양을 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동물생명 존중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그동안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반려인·반려동물을 위한 맞춤 교육이다.

도우미전나눔센터에서 기본 행동교육을 3주간 받은 유기견 중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구충 및 예방접종, 반려동물 등록 내장형칩 시술 등을 완료한 건강한 개체를 분양한다. 전문가 초청 교육 및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중학생 이상 자원봉사 및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네이바카페를 통해 입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상담을 통해 입양을 확정받을 수 있다.

입양 전 예비보호자 교육을 받고 사료와 간식, 목줄 등 기본물품도 받게 된다. 다만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기 때문에 방문 가능 여부는 센터에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

박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반려견 업계 종사자 86% ‘개물림’ 경험

교상 경험자 중 절반은 병원 방문
전체 응답자 60% 예방 교육 전문

반려견 업계 종사자 10명 중 8명은 업무 중 개물림 사고를 경험하고 절반은 병원 및 응급실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애견협회는 지난 10월 6~30일 반려견 미용사, 훈련사, 수의사 등 국내 반려견 업계 종사자 772명을 대상으로 ‘반려견 업계 종사자의 개물림 교상 실태 및 감염병 예방 인식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86%(662명)가 ‘업무 중 개물림으로 인한 교상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중 약 45%(301명)는 개물림 교상을 1개월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답할 정도였다.

교상 정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교상 경험을 한 종사자(662명) 중 약 60%

가 피부표면이 찢기거나 일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긁힘(57.1%), 심부조직 및 신경·혈관·근육손상(18.7%), 관통상(13.1%) 순이었다.

교상 경험 종사자(662명) 중 절반가량인 52%(342명)는 개물림 교상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나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처럼 사고가 빈번한데도 예방 교육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개물림 교상에 의한 파상풍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다.

한 반려동물 전문가는 “안전수칙 및 교육을 강화해 반려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예방 교육은 반려업계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예방교육은 반려업계 종사자들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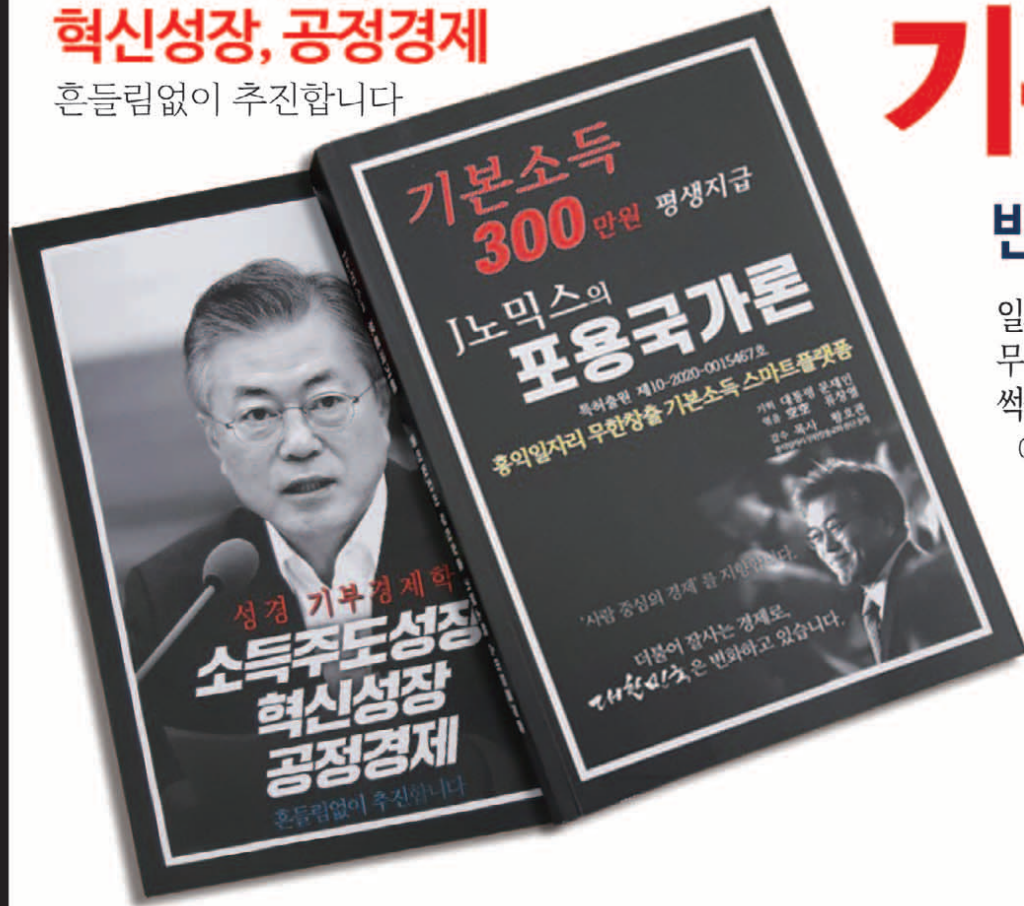
김호승 객원기자

한국애견협회 설문 조사 결과 반려견 업계 종사자 10명 중 8명은 ‘개물림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부분은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사진제공 | 펫뉴스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나?**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이!
씩을 때로 씹어 줌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아
이생망! 헬조선, 흙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시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주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병술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주영남 010-4741-7008
● 조현교 010-7374-4111 / 서재훈 010-8770-2935 ● 대전 김진구 010-8029-0059 / 김승환 010-3742-5998 / 선달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백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진영 김태덕 010-6258-3510 / 오명수 010-89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안 송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인천 허진석 010-4707-2659
● 안성희 010-5177-9479 ● 여주 상근명 010-8513-3833 ● 용인 김기명 010-6285-7653 ● 수원 황인드라마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영대 010-8005-3616
● 경기 남부 황병도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영철 010-5463-6952 ● 중국 송동우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화악이 윤이나 010-8763-8742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 바람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레이기부 품앗이게



하이우분투(주)
1644-6733